

93. 연예인 윤락 적발

비밀요정 차려 매춘알선 7명 구속

연예인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10대 소녀들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한 비밀요정 등 5개 매춘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.

서울지검 강력부 은진수 검사는 22일 유명 광고모델 겸 탤런트인 정아무개(25·여)씨 등 접대부를 고용해 비밀요정을 차린 뒤 상습적으로 매매춘을 알선해온 문의경(47·여·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)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.

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자신의 52평형 아파트에 흡바·침실 등을 갖춘 비밀요정을 운영해오면서 91년 12월 유명 광고모델 전씨를 고

객인 김아무개씨(산부인과 전문의)에게 소개시켜주고 화대 1백50만원을 받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해 2천3백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
비밀요정을 이용해온 사람들은 재벌기업인 D·S그룹 간부, 국회 사무처직원, 의사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이나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 검찰은 그동안 매매춘혐의로 국내 정상급 여자탤런트 G·H씨와 재벌그룹 회장 K씨, 정치인 B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